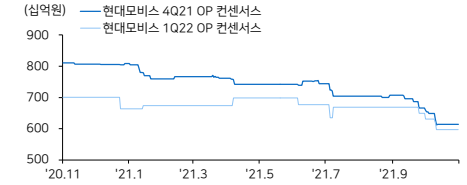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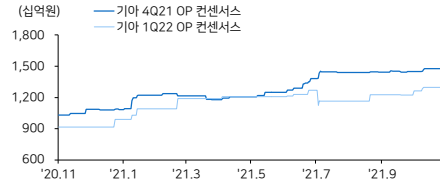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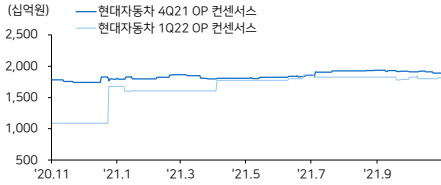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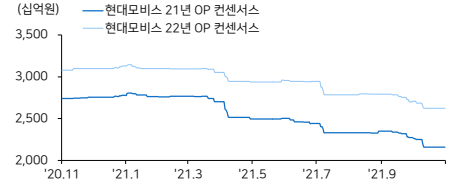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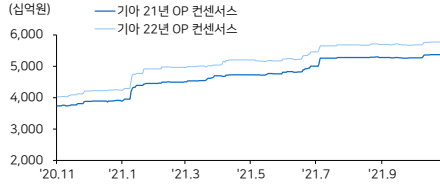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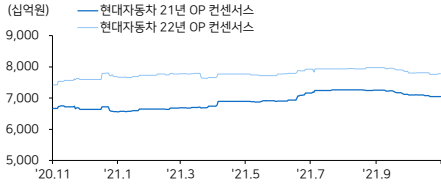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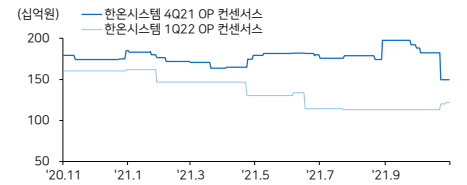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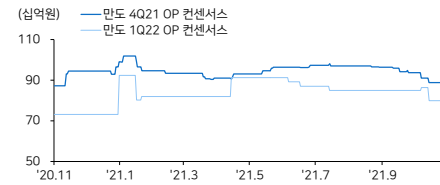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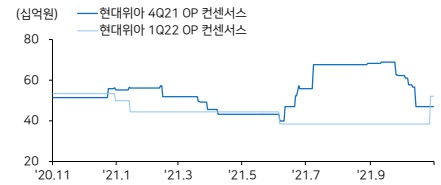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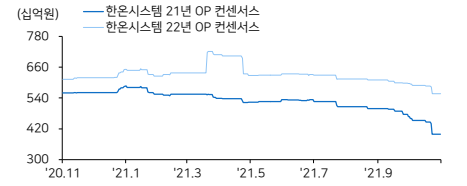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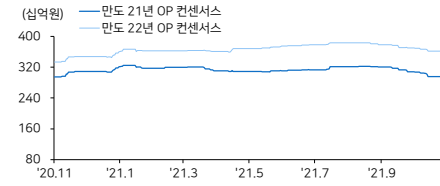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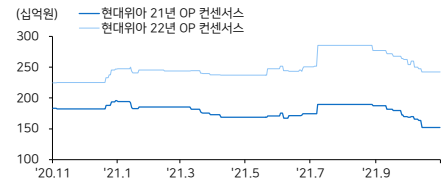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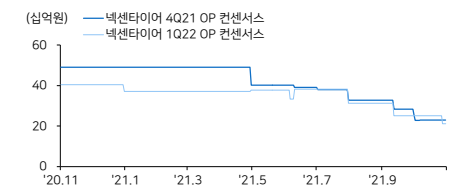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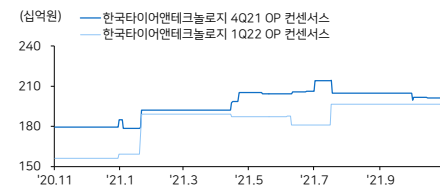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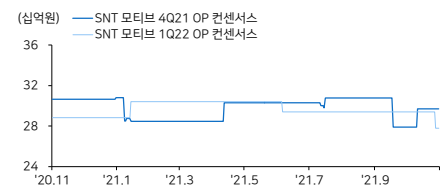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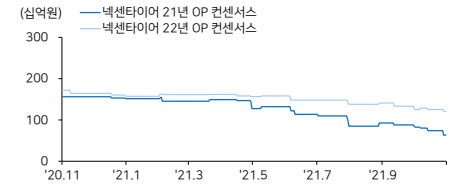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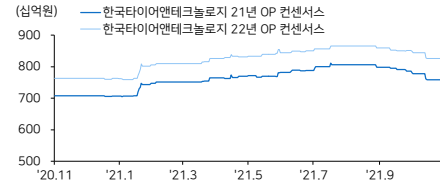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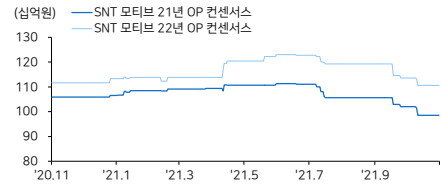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수입계, 반도체난 풀고 공장 속속 재가동 (디지털타임스)

일본 도요타가 7개월 만에 일본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반도체 수급난의 고비를 넘기는 중. 다만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여서 공급 완전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

<https://bit.ly/3l8GTnP>

"소유보다 공유"...자동차도 구독 '열풍' (뉴스토마토)

현대차 구독서비스 '현대셀렉션' 가입자 수가 14,000명, 기아의 '플렉스'는 12,000명을 돌파. 기업은 고정 수익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월 고정 비용만 지불하면 직접 소유보다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https://bit.ly/3CQvoas>

보조금 받아야 하는데...전기차 업계, 가격 인하 고민 중 (한국일보)

24일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3만5,000대로 정했지만 보조금 예산은 1조9,532억 원으로, 8,000억 원 넘게 잠는 데 그침. 이로 인해 정부 지원 보조금은 올해 대당 800만 원에서 내년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https://bit.ly/3l8KFOC>

"저무는 디젤차 시대"...신차도, 중고차도 거래 '뚝' (일간스포츠)

15년 VW의 디젤게이트에 더해 최근 요소사 사태로 디젤차 수요가 감소하는 중.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앞다퉀 디젤차 단종과 함께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출시를 서두르면서 디젤차의 점유율 감소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https://bit.ly/3Jf06V1>

서울모빌리티쇼 D-1, '아이오닉 로보택시' 등 국내 최초 공개 18종 (뉴시스)

서울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꿔 오는 26일 개막. 현대차는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아이오닉5 자율주행차'를 국내 최초공개 예정. 그외 프로페서 컨셉트카, 헤리티지 시리즈 포니, '로봇개' 4족 보행 스팟 전신도 이뤄질 예정.

<https://bit.ly/3l62RrJ>

강남에 로보택시, 청계천은 자율버스... 서울, 무인수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1487억을 투입하는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 자율차 거점 확대/대중교통 정착/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과제로 추진됨.

<https://bit.ly/3DTLim6>

반도체 수급난에 중고차 시장 '반사 호황' (매일경제)

신차급 중고차의 경우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1~10월 중고차 이전등록대수가 328만여 대로, 동 기간 신차판매대수 142만대를 두 배 이상 넘어섬.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중고차 매매 문턱이 낮아진 것도 기여.

<https://bit.ly/30XMGpS>

폰 배터리 만들면 중 비야디, 폴크스바겐 제쳐 (조선일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지난 22일 독일 VW를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시총 3위 자리에 올라섬. 비야디가 17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해 전기차 연구개발·생산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발표 이후 주가가 4.78% 급등함.

<https://bit.ly/3CQIWD8>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